

2021년도 중국지역학회 제5회 콜로키움

-제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평가: ‘퇴행’인가,
‘혁신’인가?

I. 개요

일시: 2021년 12월 4일, 오전 10:30~12:30

장소: Zoom 온라인

참석자: 발표-주장환 교수(한신대), 사회: 민귀식 교수(한양대), 이장원 교수(충북대), 이기영 교수(청주대), 김동찬 박사(연세대), 양정학 교수(육사), 유정원 교수(계명대), 정혜영 교수(건국대), 박승찬 교수(용인대), 공유식(), 최명철(), 소영화(), 회의록 정리: 김준영(탄탄글로벌네트워크)

II. 개회사

이장원 회장(충북대) / 민귀식 교수(한양대)

- 최근 개최된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대한 대내외 관심이 집중되었고, 특히, 시진핑의 장기집권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있음.
- 이에 동 콜로키움에서는 주장환 교수의 “제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평가: ‘퇴행’인가, ‘혁신’인가?” 라는 주제 하에 6차 전체회의의 의미에 대해 평가해보도록 하겠음.

III. 발표자 주요 내용

주장환 교수(한신대)

1. 서론

- 제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가 막을 내림
- ‘중공 중앙, 당의 백년 분투의 중대 성과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中共中央关于党的百年奋斗重大成就和历史经验的决议)’ (이하 ‘역사 결의’) 채택
- 1945년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关于若干历史问题的决议)’, 1981년 ‘건국 이래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당의 결의(关于建国以来党的若干历史问

题的决议)’에 이어 세 번째 역사결의

- 최초의 ‘약간’이 아니고, ‘부정(45, 이전 쏘련과 지도부에 대한 부정/82, 문화대혁명 노선에 대한 부정)’도 아닌 ‘긍정’ 기조의 역사결의
- 마오쩌둥(신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시기), 덩샤오핑(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시기)에 이은 시진핑(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시기)에 대한 긍정 등이 주 내용
- 종합하면, 6차 전체회의는 220차 전국대표대회 개최 결의(‘关于召开党的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的决议’)를 채택하였고, 이에 크게 두 가지 성과(① 2022년 하반기 개최 결정, ② 기존 정치 관례(개혁·개방 시기 전국당대표대회 직전 중대회)가 있음.
- 개혁개방기(제12기 이후) 정치 관례에 비춰봤을 때, ‘역사 결의’를 채택한 것 외에는 별다른 특이점 없음.

□ ‘역사 결의’의 채택으로 시진핑의 10년 이상의 장기집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임

- 이 사건을 ‘압도적인 승리의 자축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약간 부족한 2%를 메꿀 마지막 펀치’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는 힘들
- 전자 즉 ‘자축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 근거는 1과 2기 집권 시기 보여준 구조, 행위자 그리고 정책 차원에서의 변화와 그동안의 권력 투쟁에서의 성과를 들 수 있음
- 후자 즉 ‘마지막 펀치’의 관점에서 보면, 그 근거는 주되게 ‘시진핑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내적 논리의 모순, 역대 역사결의와의 차별성, 일대일로/ 코로나 19/ 전력난/ 미중 갈등 등의 정책 및 관리에서의 문제점 등을 들 수 있음

□ 여기에서는 각각의 추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향후 엘리트 정치에 대한 전망을 시론(試論)적으로 제시함

- 특히 짚을 점은 객관적 사건을 관찰하고 설명할 때, 주관적 열망으로 객관적 사실을 오독하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과 현재의 과학 수준을 뛰어넘는 ‘황색(黃色) 저널리즘’식 평가와 분석을 경계해야한다는 것

2. ‘자축주’ 판단의 근거

□ 이 입장은 시진핑이 2012년이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중국

정치를 질적으로 변화시킬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임

- 시진핑 집권 1,2기의 중국 엘리트 정치 구조는 기존 개혁개방기의 대표적인 유형이던 ‘지배하는(ruling)’에서 ‘술탄제적(sultanistic)’으로 과도제 유형으로 변화함

3. ‘마지막 펀치의 근거’

□ 이 입장은 여전히 시진핑의 권력 공고화는 진행중이며, 이 일환으로 이번 ‘역사결의’도 채택되었다는 것임

- 따라서 이 입장에서 보면, 이 ‘기획’의 성패에 따라, 엘리트 정치 차원에서 20차 당 대회 이후의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음

□ 시진핑 사상과 이전 ‘역사 결의’와의 차별성

- 이전 2차례 역사 결의는 중국 공산당 그리고 국가 발전의 노선 전환을 의미함
- 1945년 역사결의: 마오쩌둥 사상의 지위 확립(좌경 모험주의, 우경 기회주의에 대한 평가), 마오쩌둥 중심의 중국 공산당 재편
- 1981년 역사결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덩샤오핑 중심의 중국 공산당 재편

□ 2021년 역사결의는 앞서 두 번의 ‘역사결의’와는 다른 의미임

- ‘단절’이 아닌 ‘지속’
ex) 2020년 전면적 소강 사회 달성,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
- ‘극복’이 아닌 ‘보완’
- 결국 2021년 기존 중국 정치에서 ‘역사결의’와는 그 결이 다르고, 따라서 그 파괴력도 크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음

4. 시나리오들

□ 현재로서는 시진핑의 장기 집권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상술한 ‘자축주’ 이든 아니면 ‘마지막 펀치’ 든지 간에 시진핑의 중국 최고지도자 지위(구체적인 지위 여부와는 관계 없이)는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됨

- 이는 한 예측 보고서(CSIS+Lowy Institute)가 2021년 6월에 제출한 시나리오 중 은퇴를 2027년까지나 아니면 2032년까지나 하는 것(시나리오 2)과 유사함
- cf: 시나리오 1: 22년 질서 있는 전환/ 시나리오 3: 리더십 도전 또는 쿠데타 발생/ 시나리오 4: 예기치 않은 사고, 사망.
- 문제는 권력 공고화가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방식이냐는 것이 남았다고 사료됨
-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를 상정해볼 수 있음

□ 시나리오 1: 20차 당 대회에서 당헌 수정으로 인해 ‘당 주석제’ 부활

- 가장 급진적인 제도 변환을 통해 시진핑의 권력 강화를 추진하는 시나리오
- 마오쩌둥의 예에 따라 권력 공고화 이후 사망까지 당 주석으로 활동했던 것을 벤치마킹 하는 것임

□ 시나리오 현 제도 배치 2: 유지 하에서 권력 독점화 심화

- 시진핑에게 가장 안정적인 시나리오
- 현 집단 지도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18기 이후 지속된 권력 독점화 현상을 심화시킴

□ 시나리오 3: 푸틴 모델

-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하이브리드 시나리오
- 당내 최고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직위(국가주석, 군사위원회 주석 등)을 복수의 인사에게 배분하면서 실질적인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함
- 세력 기반을 가졌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존재함

□ 결국 이 모든 시나리오의 현실화는 시진핑 그룹이 현 정국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으며, 그 중에는 이번 ‘역사결의’의 대내외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가도 주목해야할 지점임

- 결국 이 모든 시나리오의 현실화는 시진핑 그룹이 현 정국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으며, 그 중에는 이번 ‘역사결의’의 대내외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가도 주목해야할 지점임

IV. 전체 토론

1. 정혜영 교수(전국대)

- 질문: 이번 6차 전체회의 이후 해외진출 투자가 더욱 우경화되는 기조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 발표자: 대내정책은 좌경화라고 했으나, 대외정책을 우경화라고 분류한 이유는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기에 일반적으로 이런 경향을 우경화라고 규정하기에 우파로 설정한 것임.
- 미국에 대응하여 RCEP, 상하이 협력기구 등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협력체 등을 통해 중국의 의지를 실현해가는 노선을 지속할 것을 전망됨.
- 민귀식 교수: 대외전략을 ‘우파’로 설정하는 것에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음.

2. 유정원 교수(계명대)

- 발표자의 의견에 동감하는 바, 시진핑 사상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나,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 대한 의견은? 또한, 대미 관계에서 실리적, 실용적 측면에서의 접근은?
 - 발표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도적 모호성을 즐기는 그룹도 분명 있을 수 있다. 다만, 시진핑 사상은 전통의 마르크스, 레닌 사상과도 다르며, 사회주의 사상과도 다르며, 내적 모순이 크게 있는 편임.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상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됨.
 - 민귀식 교수: 티베트에서 열린 지방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마오쩌둥의 사진과 함께 제시되면서 우상화가 보다 강화된 기조가 한층 분명해지는 것도 눈여겨볼 점임.
-
- 발표자: 대미관계의 경우, 계속 악화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시진핑 시기 국수주의적인 양상을 띄고 있는 정책적 특성상 모든 문제의 시발점을 ‘미국’ 때문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3. 김동찬 박사(연세대)

- 질문: 역사 결의를 통해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한층 확실시되는 것으로 보이나 언제까지 통치할 것으로 보이는지?
- 발표자: 언론에서는 2035년 등 시진핑이 82세가 되는 시점 등으로 확정된 듯이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를 확실히 단정짓기는 어려움.

4. 양정학 교수(육사)

- 질문: 작년에 당장(黨章)에도 군 주석제가 부활되었고, 80만명 규모의 무장경찰도 중국 중앙 군사위원회의 지휘 체계로 통합되었음. 이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 발표자: 시진핑으로의 권력을 한층 집중화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인데, 이는 과거 지도자들이 퇴임 이후에도 중국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유지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임. 또한, 큰 규모의 무장경찰도 결과적으로 공산당의 군대라는 의미가 한층 강화된 것임.

5. 이기영 교수(청주대)

- 질문: 시진핑의 권력은 과연 공고한가? 시진핑의 3번째 임기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그 이후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일 것. 2012년부터 시진핑은 반부패의 명목으로 정적들을 숙청했음. 발표자께서는 이미 상하이파가 다 정리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시진핑의 권력독점은 공고하고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 발표자: 시진핑의 권력이 충분히 공고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6차 전체회의에서 역사 결의를 통해 자신의 권력 강화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아직 충분히 공고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판단함.
-
- 질문: 미국과의 경제적패권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중국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시진핑의 지속적 독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독재개발은 사실 낙후국이 경제성장을 하는 경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미국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가주도의 생태계 형성이 미국 등이 진행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생태계 조성 과 활성화와 비교하여 경쟁력

을 갖는다고 평가하는지

- 발표자: 이것은 바로 답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면 본인도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학제간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끝-